

『예루살렘 공성전』과 『워킹 데드』: 서구 피포워 심리 연구*

이 희 구

중원대학교

1. 서론: 폭력의 사디즘

유대인이 추방당하고 사라진 14세기 말 영국에서 『예루살렘 공성전』(*Siege of Jerusalem*)은 부재의 타자인 유대인을 다시 살육 대상으로 호출한다. 무엇보다도 이 두음시(頭音詩)는 영국에서 일어난 가장 참혹한 반유대 폭력의 상징인 1190년 요크의 학살(1190 York Massacre)을 떠올리게 만든다. 요크의 학살은 그 참혹함보다 신학적 대의명분을 핑계로 유대인의 채무 기록을 없애려는 지역 호족들의 비열한 저의가 더 충격적이다. 이 학살은 반유대 정서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시대의 불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예루살렘 공성전』의 인기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시 살펴야한다. 전염병, 반란, 기나긴 전쟁, 왕권의 교체 등 종말적 상황을 목도한 사람들에게 이 공포를 투사할 타자는 간절히 필요했다. 사람들은 “예수의 복수”(vindicta salvatoris)라는 거대한 명분 아래 그들을 둘러싼 공포를 전이하고 그 공포와 함께 처리해야 할 대상이 필요했다. 이 명분은 공성전의 잔인함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8018013)

이 쾌락으로 치환할 때 발생하는 윤리적 거부감을 제거한다. 종교와 법 사이의 교환이 가능했고 때론 동일시되었던 중세 영국에서 예수의 복수는 법으로 기능하며 타자 살해라는 비윤리적 쾌감에 정당성을 보장한다. 이 정당성이 아니었다면 기독교의 박애와 병치할 수 없는 폭력은 쾌락의 대상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베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의 샤일록(*Shylock*)처럼 법의 이름으로 호명된 부채의 유대인들은 기꺼이 폭력의 대상이 되어준다. 법과 부채의 타자의 관계, 그리고 관계가 허락한 폭력의 사디즘은 『예루살렘 공성전』의 인기를 설명할 수 있다.

이 사디즘은 좀비 서사를 설명하는데도 유용하다. 좀비 서사의 경우 독자/시청자는 이야기의 전개보다 인간이 좀비를 처치하는 방식에서 쾌감을 느낀다. 좀비 서사의 배경이 되는 좀비로 인한 종말은 서사 자체를 단순하게 만든다. 문명이 기능하지 않는 세계에서 무수한 좀비와 그들에게 포위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생존을 확보해야하는 인간의 이야기는 거의 유사하게 진행된다. 이 단조로움을 해소하는 것은 서사마다 다른 좀비의 특성을 내세우고 그것을 이용해 인간이 그들을 처치하는 방식의 변화이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동원한 좀비 살육은 좀비 서사가 새로움을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 할 수 있다. 『예루살렘 공성전』과 『워킹 데드』(*Walking Dead*)가 공통된 사디즘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 “법”의 이름으로 “기독교” 로마인의 공격성이 정당성을 얻었던 『예루살렘 공성전』과 달리 『워킹 데드』에서 인간은 법이 아닌 희생자 코스프레(코스프레, *cosplay*)를 통해 잔인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근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는 주어진 신학적 본질의 법을 해체하고 사회적 약속에 기반을 둔 의무와 권리를 통해 타자들과의 관계를 맺도록 했다. 현대 사회는 최소한 형식적으로 호모 사케르(*homo sacer*)를 용인할 수 없다. 법의 밖에 존재하기에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타자의 상대적 부채는 피포위(皮包圍) 공포와 같은 내면적인 두려움을 해소할 곳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현대 좀비 서사는 모든 사회의 법이 붕괴된 좀비 종말론을 가정하면서도 윤리적 태도를 저버리지 못한다. 유일하게 자신을 희생자의 위치로 강등시킨 이후에야 인간은 맘껏 폭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 받는다. 전 미국 대통령이 흑인이었고 흑인에 대한 차별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지만 흑인과 이민자에 대한

인종차별이 여전히 미국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트럼프가 백인 남성, 특히 교육 수준이 낮은 백인 남성의 지지로 당선되었다는 인식은 지금 오히려 차별받고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백인의 피해자/희생자의 식에서 출발한다 해도 무리가 아니다. 그들이 열등감을 자처한 이유는 어쩌면 열등감을 통해 유색인과 이민자를 배척할 수 있는 정당성을 얻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도래하는 민주주의는 합의라는 법의 형식으로 그 모양새만을 가지고 있다. 이 형식에서 모든 시민은 평등하고 타자, 특히 약자라고 정의된 타자에 대한 폭력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 피해자 혹은 희생자의 위치를 점유해야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지켜야한다는 폭력의 정당방위가 성립된다. 『워킹 데드』에서 법의 집행자인 경찰 릭 그라임즈(Rick Grimes)는 법이 사라진 좀비 종말의 시대에도 여전히 그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한다. 이 정당성은 타자인 좀비들에게 당한 폭력을 그대로 되갚아 줄 수 있는 권리를 공식적으로 허락한다. 『예루살렘 공성전』에서 발견되는 약(타)자에 대한 강자의 일방적이고 노골적인 폭력은 우리 시대에 이제 기능할 수 없다. 신학적으로 주어진 법, 그리고 정당성은 이제 합의에 의한 형식적 민주주의로 인해 부정되었지만, 나를 둘러싼 종말론적 위기와 공포는 여전히 그 두려움을 타자에 대한 폭력으로 해소하려는 욕구로 환원시킨다. 좀비 서사의 인기는 약자의 위치를 선점하여 안전하게 이 폭력의 사디즘적 쾌감을 느끼고 그 공포를 해소하려는 우리의 욕망을 드러낸다. 『예루살렘 공성전』과 『워킹 데드』는 언뜻 공통점을 찾기 힘든 서사이다. 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이 시공간의 간극을 무시하고 이들을 호출한 이유는 이 두 서사가 피포위 공포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타자의 윤리에 대한 중요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 논문은 중세 두움 무훈시인 『예루살렘 공성전』과 대표적 좀비 종말 서사인 『워킹 데드』를 비교하면서 피포위 공포와 이로 인한 폭력의 양식을 살펴보고 타자에 대한 윤리적 함의를 도출하려 한다.

2. 공성전: 서구 피포위 공포와 문학

위기담론은 인류역사와 함께 시작하였다. 인류는 그들의 주변에 위험이 도사

리고 있다는 공포를 가지고 살아왔고 이는 인류의 축복이자 재앙이었다. 우리는 농경을 통해 굶주림의 공포를 떨어낼 수 있었지만 이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전쟁의 대가를 치러야했다. 원시적인 공동체에서 습득한 이러한 공포는 끊임없이 분쟁의 역사를 만들어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적이라고 규정하는 이러한 피포위 심리는 개인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작동한다. 유대인의 수천 년의 역사는 이 피포의 심리가 한 민족과 그 공동체 안의 개인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준다. 나치와 30년대에 일본 역시 어떤 방식으로 이 피포위 심리가 전체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Bar-Tal). 21세기 현재 이 심리는 팔레스타인과 이슬람 국가 단체(IS)에서 발견된다. 이들이 느끼는 피포위 공포는 주로 테러리즘이라는 폭력의 형태로 드러난다.

피포위 심리는 주로 국제관계학의 관점에서 주로 이해되어 왔다. 그렇기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현대의 피포위 공포는 주로 패권자인 미국이 만들어낸 가상의 적들에게 투사된다. 피포위 심리는 미국처럼 자본주의와 소비주의의 정점에서 있는 국가의 개인에서 폭넓게 발견할 수 있다. 국가적인 피포위 공포가 전체주의적 민족주의로 발현된 반면 미시적 차원의 개인적인 공포는 미시적인 소비주의 문화를 통해 드러난다. 풍요로움의 분배가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충돌하는 고도로 발달된 국가에서 개인은 상대적인 빈곤에 놓이게 되고 자신의 소유를 지키고 소비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타인을 경계해야 한다. 미국과 같은 나라의 시민들은 국내의 경쟁과 차별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공포도 직시해야 한다. 9/11 사건같이 이전에는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미국 내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테러가 가져온 공포는 분명 미국인들의 기억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더 중요한 사건은 미국 경제의 위기와 제 3 세계의 경제적 약진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인들이 풍족함의 환상에 빠져 흥청망청 써버린 세계의 자원은 고갈되고 중국과 인도와 같은 제 3 세계의 강대국의 등장은 이 줄어가는 자원마저 사라질 것 같은 공포를 가져왔다. 거기에 미국 경제의 불황은 불붙은 미국인들의 공포에 기름을 붓는다.

미국인이 느끼는 이 피포위 공포는 좀비 영화에서 가장 구체적인 모습으로 등장한다. 좀비의 기원은 다양하지만, 좀비의 구체적인 모습은 60년대 영화를 통해 완성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좀비의 모습이 조지 로메로(George Romero)의 영화에서 등장했고 각 영화나 소설에서 개성 있는 모습으로 발전한다. 좀비의 인

기는 시대에 따라 등락하지만 2000년대 들어와 좀비의 인기는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60, 70년대의 좀비는 주로 자본주의 소비문화의 산물로 인식되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 나타난 좀비 서사의 급작스런 양적 성장은 9/11사태의 충격과 깊은 관련이 있다(Bishop). 이때 탄생한 좀비 서사의 특징을 꼽으라면 좀비의 엄청난 개체 수이다. 이전의 좀비가 지역적이고 소수의 개체로 움직였다면 2000년대에 탄생한 좀비는 “군단”급의 개체수라는 인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공성전 상황으로 연결된다. 수많은 좀비 개체와 생존을 위해 건물 안에 갇혀있는 인간이 만들어 내는 공성전 상황과 현대인, 특히 미국처럼 극도로 산업화된 물질 중심의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피포위 공포는 서사의 형태로 재현된다. 이러한 좀비형 피포위 공포를 중심으로 쓰인 작품을 고르라면 『워킹 데드』를 언급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 그래픽 노블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사람들이 좀비를 피해 교도소를 은신처로 삼은 일화다. 감금을 위한 시설에 스스로 입소한 아이러니한 상황은 피포위의 공포를 표현하기 위한 좋은 장치가 된다.

피포위 공포는 현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중세의 텍스트에서도 피포위 공포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오랜 전통을 가진 공성전은 성의 안과 밖이라는 분리를 통해 피포위 공포를 도식적으로 잘 표현했다. 성곽(城郭) 문화를 가진 서구에서 공성전은 전쟁의 가장 흔한 형태였고 이는 성경을 비롯한 서사에서 쉽게 발견된다. 공성전의 무기는 다양하지만 전술은 아주 단순하다. 공격자의 입장에서 공격이 여의치 않으면 보급에서 우위를 이용해 시간을 끌면 쉽게 이길 수 있다. 반면에 수성(守城)을 해야 하는 수비자의 입장은 항상 열세에 놓인다. 이들이 느낀 피포위 공포는 글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이다. 폐쇄된 공간에서 아군과 적군이 조우하는 공성전의 상황은 독특한 문학적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그렇기에 역사적 사실을 다룬 전쟁 서사뿐만 아니라 중세 로맨스 서사나 종교적 알레고리뿐만 아니라 현대 소설에서도 공성전이나 그것의 비유를 찾기란 힘들지 않다. 예를 들면 『장미 이야기』(*Le Romance de la Rose*)나 『선녀 여왕』(*Faery Queen*)과 같은 중세 르네상스 로맨스, 종교 텍스트인 『인내의 성』(*Castle of Perseverance*)으로부터 현대 작품인 J. G. 패럴(Farrel)의 『크리슈나푸르 공성전』(*The Siege of Krishnapur*)까지 공성전은 정인(情人)을 찾아가는 기사의 이야기나 “종교나 역사를 비틀어보는 도구와 같이 다양한 문학적 장치의 역할”을 했다(이희구 219).

3. 『예루살렘 공성전』: 유대인과 호모 사케르

『예루살렘 공성전』은 비평가들에게 곤혹스런 텍스트임에 틀림없다. 랠프 Hanna(Ralph Hanna)는 이 텍스트를 초콜릿 입힌 타란툴라(독거미)에 비유하여 이 곤혹스러움을 표현했다(109). 증세 말 영국의 두운시 부흥기에 탄생한 이 두운시는 문학 사료로만 보면 한나의 비유처럼 초콜렛의 달콤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 시는 당대의 다른 작품에 비교해도 역동성이나 생동감에 있어 뒤처지지 않는다(Hamel 178). 이 달콤함 속에 이 시는 반유대주의라는 치명적인 맹독을 품고 있다. 인류사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인 홀로코스트를 겪은 후 유대인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의 표현, 더 나아가 반유대주의 작품의 분석은 그 자체만으로도 맹독을 지닌 거미를 만지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이 금기가 약해졌는지 최근에는 『예루살렘 공성전』의 반유대주의 혐의를 벗기려는 시도가 때때로 눈에 띈다. 예를 들면, 엘리사 나린 반 코트(Elisa Narin van Court)는 이 작품이 반유대주의를 드러낸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를 뒤집는 다른 종류의 서사가 있다고 주장한다(234). 반 코트는 이 텍스트 안에 숨겨진 “유대인과 기독교인, 그리고 폭력에 대한 애매모호함 때로는 심오한 혼란”을 제시하면서 반유대주의라는 획일적인 잣대를 거부한다(244). 로저 니콜라스(Roger Nicholas)는 반유대주의에 대한 집착이 서사의 이해를 방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십자군 전쟁과 성지순례 서사의 틀로 이 공성전 서사를 바라보기를 주문한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반유대주의를 배제한 독해가 가능한가? 이 시를 다 읽고 서사의 일부분만 들추어 곱씹어 보면 시인이 느꼈을 그 동정을 어슴푸레 공감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 타자에게 가해지는 일방적인 폭력과 이 폭력을 전달하는 노골적인 묘사는 다른 방식의 읽기를 방해하고 반유대주의 해석을 피하려는 시도를 다시 반유대주의 폭력이라는 독해로 환원시킨다.

가장 충격적이고 잘 알려진 어머니가 자식을 구워먹는 장면만 보더라도 타자에 대한 이 서사의 폭력성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음이 명확해진다. 이 장면에서 공성전이라는 형태로 유대인에게 가해진 폭력은 가해자의 잔인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의 내재적인 폭력성을 고발하는 거울이 된다. 오랜 공성전으로 인해 식량이 떨어진 예루살렘 성내에서 굶주림은 가장 큰 고통이었고 음식은 전 재산을 내놓아도 살수 없는 대상이 되었다. 오랜 굶주림에 배고픔

의 고통을 견딜 수 없었던 어머니 마리아는 마침내 아이를 구워먹는다.

마리아라 불리는 한 참한 부인은 음식이 없어
자신이 낳은 아이를 솥에 굽는다.
아이의 옆을 구우면서 이렇게 슬피 말한다.
“아들아, 양쪽으로 우리의 슬픔이 높구나.

“도성 밖으로 전쟁이 일어 우리 몸을 죽이려 하고
안으로는 굶주림이 너무 강해 우리 가슴이 터지려하는구나.
그러니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내어놓고
네가 나온 곳으로 다시 들어가라”며 어깨를 먹는다.

On Marie, a myldwyf, for meschef of foode,
Hire owen barn that hobare ho brad on the gledis,
Rostyth rigge and rib with rewfyl wordes,
Sayth, "Sone, upon eche side our sorow is alofte:

"Batail aboute the borwe our bodies to quelle,
Withyn hunger so hote that negh our herte brestyth.
Therfor yeld that I thee gaf, and agen tourney
And entre ther thou cam out," and etyth a schouldere. (1081-1088)

이 장면에서 시인이 극심한 기아의 상황에 빠진 이 여인을 측은하게 바라본다고 할 수 있는가. 앞서 언급한 반 코튼은 시인이 이 장면을 묘사할 때 “미친”(wode, 1093)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이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를 설명함으로써 그 잔인함을 약화시키고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을 누그러뜨린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마리아라는 이름을 통해 연상되는 성서의 인물과 이 여인의 병치는 유대인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의 순수함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 어머니의 이름은 바로 성모의 이름과 연결된다. 성령을 통해 구세주 예수를 낳았던 마리아와 자신이 낳은 아들을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구워먹는 또 다른 마리아의 대비는 유대인의 자손이지만 유대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예수와 유대인의 원죄를 연상시킨다. 이는 다시 구세주 예수를 죽인 인류의 원수 유대인에 대한 복수의 정당성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 장면이 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구약 열왕기하(6:28-29)라는

사실도 심상치 않다.¹ 유대 경전인 구약을 끌고 들어오면서 시인은 어머니가 허기를 채우기 위해 자식을 구워먹는 광기의 행동이 유대인의 사악한 본성에서 나온 것임을 교묘하게 부각시킨다. 유대인의 예수 살해 자체가 그 광기에서 출발하기에 마리아의 미친 행위는 그 광기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 충격적인 장면을 삽입한 시인의 의도는 성을 둘러싼 로마군 가해자의 잔인함의 고발이 아니라 유대인의 악한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려함일지 모른다.²

실제로 『예루살렘 공성전』보다 더 잔인한 십자군 무훈시(chanson de geste)가 있다. 메리 해멜(Mary Hamel)은 『예루살렘 공성전』과 『사자심왕 리처드』(Richard Coer de Lyon)를 비교하면서 리처드의 잔혹함에 비하면 티투스는 그래도 인간적이라고 주장한다(180-181).

“이게 도대체 무엇이나?”라고 왕이 소리쳤다.
그리고 그는 미친 듯 웃기 시작했다.
“뭘? 사라센의 고기가 이렇게 맛있었나,
전에는 어찌 이 맛을 알지 못했는가?
신의 죽음과 부활을 두고 맹세컨대,
우리는 음식이 없어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공격을 하는 동안은
사라센을 죽이고 그 고기를 취해서
그것을 삶고, 구어, 파이처럼 만들어
그들의 살을 뼈까지 발라 먹을 것이다.

“What devyl is this?” the kyng cryde,
And gan to lawghe as he were wood.
“What? Is Sarezynys flesch thus good,
And nevere erst I nought wyste?
By Goddys deth and Hys upryste,
Schole we nevere dye for defawte

¹ 『예루살렘 공성전』의 시인은 공성전에 관한 많은 부분을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존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요세푸스는 다시 성경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전개하고 있다.

² 친족살인의 문제는 좀비 서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가족이나 친구였지만 지금은 나를 먹을 수 있는 괴물 좀비의 존재는 현대인에게 가족과 이웃을 정의하는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Why! we may in any assawte
 Slee Sarezynys, the flesch mowe taken,
 Sethen and roste hem and doo hem baken,
 Gnawen here flesche to the bones. (3214-3223)

요리된 사라센의 시신을 먹으며 그 맛에 감탄하는 리처드는 『예루살렘 공성전』의 마리아만쿰이나 불편하다. 이 시인에게 십자군의 수장 리처드는 예수의 복수를 위해 예루살렘을 탈환하려는 왕이지만 모든 행동에 면죄부를 받는 절대 선이 아니다. 시인은 때론 그를 샤를마뉴 대제 같은 기독교 영웅으로 추앙하지만 그의 악행을 고발할 때는 그를 “악마”(devylle, fende)라 부르며 비난한다. 『예루살렘 공성전』의 시인이 로마의 황제와 그 아들에게 절대 선을 부여했다면 『사자심왕 리처드』의 시인은 이 호명을 통해 그의 잔혹한 악행이 그 어떤 신학적 정당성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십자군 원정에 참여한 기사를 제외한) 중세 영국인들에게 사라센은 실재하는 그들의 적이라기보다 상상 속의 타자일 뿐이었다. 사라센은 유럽인과 “궁극의 차이를 지닌 인종적 타자”(Cohen 115)이기 때문에 인간보다는 괴물에 가깝다. 그들은 어쩌면 『맨더빌여행기』(*The Book of John Mandeville*)에 등장하는 머리가 어깨에 달리거나 개의 머리를 한 인간일지 모르겠다(1855).³ 당대의 독자들이 그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이다. 사라센을 향한 십자군의 잔혹한 폭력은 좀비 서사에서 인간이 좀비에 퍼붓는 헤드샷만큼이나 고통의 공감을 허락하지 않는다. 리처드가 건강을 되찾기 위해 그들의 머리를 잘라서 먹든 요리를 해서 사라센 동료에게 먹이든

³ 실제로 중세에 사라센은 개의 자식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퍼져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과 개의 머리를 가진(cynocephalus) 괴물로 인식되었다(Friedman 67). 반면에 『맨더빌여행기』에서 등장하는 사라센은 십자군 전쟁 무훈시와는 다르게 긍정적으로 그려진다. 쉬린 칸모하마디(Shirin A. Khanmohamadi)에 따르면 『맨더빌여행기』의 화자 시점이 불안정한 이유는 화자가 끊임없이 타자의 시선을 끌어오고 이로 인해 기독교인의 주체가 “괴물이건, 사라센이건, 이교도이건 간에” 어떤 타자의 관점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115). 이는 당시 기독교 세계 밖의 구원에 문제에 대한 신학적 논의와 관련이 있다. 칸모하마디는 『맨더빌여행기』의 작가는 “의로운 이교도인”라는 신학적 문제를 타자의 말을 빌려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전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머나먼 여행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타자의 말로 신학적 문제를 제기한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괴물, 사라센, 이교도의 등치가 여전히 지배적인 심리였음을 반증한다. 『맨더빌여행기』의 저자는 사라센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만 유대인에게는 여전히 가혹하다(Higgins 81).

(3347-3758) 이 시의 잔혹함은 당시 독자들에게 『예루살렘 공성전』에서 유대인의 묘사에 부여된 잔혹함에 비하면 덜 충격적이었을 것이다.⁴

『예루살렘 공성전』에서 유대인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구워먹고, 그들의 머리는 터져 머리뼈가 수백 미터를 날아가 발에 떨어진다. 심지어 날아온 투석에 임신한 여성의 배가 터져 그 속의 태아는 다시 벽을 넘어간다(825-832). 이러한 『예루살렘 공성전』의 폭력이 다른 샤를마뉴 로맨스나 『사자심왕 리처드』보다 잔인한 이유는 이 폭력의 대상이 이 서사의 독자들의 한때의 “이웃”이기 때문이다.⁵ 이 폭력의 대상은 이 시가 쓰인 당시에는 더 이상 영국 땅에 살수 없었던 유대인들이다. 이들은 1290년 공식적으로 영국에서 추방당했다. 1066년 윌리엄 대제와 함께 영국 땅을 밟은 유대인은 왕의 비호를 받는 동시에 착취의 대상이기도 했다. 대륙에서 새로운 금융 지식을 쌓아온 유대인들은 왕과 호족의 돈줄이었다(Mundill 42). 왕과 귀족이 유대인을 착취하면 할수록 유대인은 채무자에게 더욱 가혹했고, 이는 유대인에 대한 민중의 혐오를 자극했다. 그렇기에 유대인의 위태로운 삶은 그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귀족의 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Mundill 9). 대륙과 마찬가지로 1290년 완전히 추방되기 전 크고 작은 유대인 학살이 영국에서 끊이지 않았다. 그 가운데 영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학살은 1190년 『예루살렘 공성전』이 탄생한 바로 요크에서 일어났다. 유대인 정착 후 가장 야만적 행위로 알려진(Hyams 125) 요크 대학살은 중세 영국의 반유대주의 폭력의 대표적인 상징이 된다.

십자군 운동의 분위기가 끓어오르던 시기에 리처드 왕의 대관식에 유대인, 특히 거부(巨富) 베니딕트(Benedict)의 참석이 거부당하자 유대인들은 폭동을 일으

⁴ 리처드의 식인은 『사자심왕 리처드』 연구에서 논란의 대상이다. 이 인용문에서 열병에 걸린 리처드는 치료를 위해 돼지고기를 먹기를 원하지만 찾지 못하고 굶은 사라센 병사의 살가죽을 벗기고 요리를 해먹는다. 두 번째로 리처드는 인질의 몸값을 주고 구하러온 사라센 사절에게 인질을 죽여 요리를 만들고 사절에게 먹인다(3409-3438).

⁵ 요크 대학살의 “이웃”과 “희생자”에 대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Sarah Res Jones의 “Neighbours and Victims in Twelfth-Century York: a Royal Citadel, the Citizens and the Jews of York”을 보라. 이와 더불어 2010년 요크 대학살에 대한 국제 학술대회가 요크 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York 1190: Jews and Others in the Wake of Massacre”의 주제로 열린 이 학술대회의 다양한 논의들은 2013년 *Christians and Jews in Angevin England: The York Massacre of 1190, Narratives and Contexts*로 출판되었다. 영국의 유대인과 1190 사건에 대한 사회, 정치, 문화적 환경에서부터 대학살의 현재와 미래의 관점에서의 의미까지 다양한 논문들이 실려있다.

킨다. 이 폭동은 도시에서 도시로 전염되어 요크까지 번졌다. 폭동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요크의 유대인들은 클리포트 성(Clifford Tower)에 모여 왕이 그들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매관(買官)을 위해 유대인의 돈을 빌렸지만 관직을 얻지 못해 파산지경에 이른 귀족들은 이때를 기회로 그들을 성에 몰아두고 죽이려 한다. 사람들은 공성전 무기들을 가져와 클리포트 성을 에워싸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배교를 조건으로 내세워 사실상 그들을 몰살시키기로 결정했다. 공성전에 사용되는 무기와 배교라는 선택할 수 없는 조건 앞에서 간헐이던 몇몇을 제외한 모든 유대인들이 자살을 선택한다. 그들은 부녀자를 먼저 죽이고 불을 질러 죽음을 맞이한다. 이 소식은 영국뿐만 아니라 대륙에까지 알려져 많은 기록을 남겼다. 특히 영국에서 기독교 역사가들은 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 중에서 뉴버그의 윌리엄(William of Newburgh)은 『영국의 사건 사』(*Historia Rerum Anglicarum*)에서 1190년에 일어난 이 학살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의 의미를 당시 십자군 전쟁에 맞추고 있다. 윌리엄은 그의 원전인 하우든의 로저 사제(Roger priest of Howden)의 기록을 충실하게 따라 이야기를 확장시키는데, 그가 사용한 단어를 살펴보면 그의 역사는 예루살렘 공성전을 기록한 요세푸스의 『유대인 전쟁』(*Bellum Judaicum*)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요크 학살은 요세푸스가 기록한 마사다(Masada) 공성전에서의 유대인 학살과 유사하다. 윌리엄은 리처드 왕을 예루살렘 탈환이라는 종교적 명분을 완성할 “새로운” 티투스로 만들고 싶었는지 모른다.⁶

1190년 유대인 학살이 벌어진 이 토양에서 『예루살렘 공성전』은 태어났다. 가장 오래된 사본 Bod. MS. Laud Misc. 656은 대략 1380년에 쓰인 것으로 알려졌고 많은 학자들은 이 작품이 요크에서 처음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요크 학살 이후 모든 유대인이 추방되기까지 100년이 걸렸고, 『예루살렘 공성전』이 등장하기 까지 다시 100년이 흘러갔다. 더 이상 유대인이 살고 있지 않았던 요크에서 『예루살렘 공성전』은 아주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읽혔다. 사본의 수만 보더라도 이 인기는 1세기 정도 지속되었다(Hanna 116). 요크의 독자들은 부재한 “이웃”인 유대인의 학살 이야기를 다시 즐길 수 있었지만 달콤한 이야기 속

⁶ 윌리엄이 요세푸스를 통해 리처드왕에게 십자군 전쟁의 사명을 정당화하는지에 대해서는 니콜라스 빈센트(Nicholas Vincent)의 “William of Newburgh, Josephus and the New Titus”를 보라.

의 타란툴라를 못보는 듯하다. 독자들은 이 폭력의 향연을 어떤 방식으로 합리화하고 즐길 수 있는 이야기로 인식하게 되었는가?

잘 알려져 있듯이 『예루살렘 공성전』은 “그리스도의 복수”라는 인기 있는 서사 전통 아래 탄생한 작품이다. 이 서사를 단순하게 정리하면 유대인을 향한 폭력에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작품이다. 서기 70년 로마군의 예루살렘의 공격은 성경 예언의 성취라는 신학적 의미로 인해 중세의 신학과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66년에 시작된 유대인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시작된 로마군의 원정은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끝이 난다. 전쟁 초기에 유대인들이 몇 차례 승리를 거두었지만 네로가 베스파시아누스(Vespasian)와 아들 티투스(Titus)를 선두로 성들을 하나하나 함락시켰고 마침내 70년 여름 로마군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지난한 공성전을 시작한다. 로마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 끔찍한 굶주림과 유대인 간의 내분이었다. 이 굶주림과 내분은 유대인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고 로마군은 이 혼란을 틈타 성을 함락시켰고 남아있는 유대인 대부분을 학살했다.

예루살렘 공성전의 역사는 초기 기독교 신학을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킨 “중요한 원동력”이었다(Wright 6). 기독교가 로마제국으로 퍼져나가면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제국의 기독교는 빌라도의 로마제국이 저지른 원죄에 면죄부를 부여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 모든 죄를 유대인에게 뒤집어씌움으로 이 사명을 완수한다. 로마의 새로운 신학은 이 목적을 위해 예수를 유대의 민족적 상황에서 분리시켜 비역사적이고 탈정치적인 구세주로 등장시킨다. 이제 예수는 더 이상 유대 왕국을 회복해야하는 구약의 메시아가 아니라 신의 아들로 개개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자이다. 스티븐 K. 라이트(Stephen K. Wright)의 표현을 빌리면,

기독교 상상력에서 예루살렘 몰락은 마침내 세속적 [역사적] 맥락을 탈피했고 다름 아닌 교회가 회당에 궁극적인 승리를 했다는, 즉 서방 교회가 자신의 유대교 전통을 부정했다는 상징이 되었다.

In the Christian imagination,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was finally removed from its secular [historical] context altogether and came to stand for nothing less than the ultimate triumph of Ecclesia over Synagoga, a symbol of the western church's repudiation of its own Jewish heritage. (6)

이 신학은 말콤 헤브론(Malcolm Hebron)의 주장처럼 역사는 신의 계획 성취를 위해 발전한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적 역사관과 맞닿아있다. “트로이 몰락”의 고전 서사 전통이 권력의 흥망성쇠라는 보에티우스(Boethius)의 순환의 역사관이려면 “예루살렘 공성전” 서사 전통은 예수의 복수라는 신학적 목적을 위해 그 결말이 예정된 일방적인 역사이다(Hebron 113). 이 역사관에서 선과 악은 이미 규정되어 있으며 선의 승리는 예정되어있다.

이 전쟁은 자신의 민족을 버리고 로마에 충성 맹세한 요세푸스(Flavius Josephus)에 의해 자세히 기록되었다. 이 유대 역사 기록에 설화와 신비한 종교적 내용이 덧붙여지면서 “예루살렘 공성전” 서사 전통은 초기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티투스(Titus)와 그의 아버지이자 곧 황제가 될 베스파시아누스가 예수의 얼굴이 찍힌 베로니카의 손수건을 만지고 기적으로 치유되었다는 기적 설화와 이들이 예수의 은혜를 갚기 위해 예루살렘 공성전을 치른다는 이야기가 도입되면서 서사의 전체적인 열개가 완성되었다. 8세기경에 쓰인 『구세주의 복수』(*Vindicta Salvatoris*)에서 예루살렘 공성전 서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공성전” 전통의 완성된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후 십자군 원정과 맞물려 이 서사는 무훈시의 영향을 받아 중세 로맨스의 형식을 갖춘다. 무훈시로 인해 이 서사는 초대교회의 역사와 맞물린 1세기 이전 사건을 중세 기사 문학의 클리셰를 통해 표현할 뿐만 아니라 신학적 내용을 더 강화시킨다. 이 서사에서 예루살렘 파괴와 유대인의 학살은 신이 내린 사명임이 명백해지고 신이 부여한 정당성은 로마군이 행한 모든 폭력에 신성함을 부여한다. 이 작품은 이후 다양한 “예루살렘 공성전” 서사의 원천이 된다. 이 전통의 많은 서사 가운데 본 논문이 다루고 있는 두음시 『예루살렘 공성전』은 이 전통의 내용과 아주 유사하지만 전쟁의 묘사에서 그 잔혹함이 이 전통의 다른 서사와 비교를 거부한다. 이런 서사 전통은 『예루살렘 공성전』의 잔인한 폭력에 신학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기독교 윤리의 틀 안에서 가학적 쾌락을 허락한다.

이 신학적 정당성은 군주에게 초법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상태’를 부여한다(Schmitt 5). 법을 제정할 수 있지만 그 법에 구속받지 않는 군주만이 어떤 규정되기 힘든 영역에 자신을 위치시키고 통치할 수 있다. 칼 슈미트(Karl Schmitt)는 신정(神政)이 분리된 근대의 통치 모델의 작동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예외상태”(the state of exception)이라는 신학적 개념을 도입했다. 근대 사회와

달리 『예루살렘 공성전』이 탄생한 신정일치의 중세 사회에서 신학은 뒤로 숨을 필요가 없었다. 예수의 죽음을 복수하라는 신의 명령과 이를 뒷받침하는 신학적 정당성은 서사에 등장하는 모든 폭력을 허용하고 폭력의 쾌감이 불러오는 죄책감을 씻어준다. 『예루살렘 공성전』의 군주(황제)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는 예외상태의 정점에 있다. 기적이라 불리는 신에 의한 자연 법칙으로부터의 자의적 일탈이 신의 예외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면(Schmitt 36), 이 로마의 군주는 치유의 기적을 통해 초역사적(혹은 시대착오적) 기독교 황제로 등장하고 예수의 복수를 위해 벌어지는 폭력의 윤리적 일탈에도 면죄부를 받는다. 반면에 유대인은 조르지오 아감벤(Giorgio Agamben)이 소개한 호모 사케르(homo sacer) 개념에 가장 적합한 예가 된다. 그에 따르면 호모 사케르는 법질서 외부에 있기 때문에 죽여도 상관없지만 불결하기에 희생 제의에 사용될 수 없다. 호모 사케르는 법의 외부에 있는 동시에 법 내부의 질서에 포함된다. 그들은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하고 생 그 자체만 가진 모든 권리로부터 배제된 “벌거벗은 생명”(bare life)이다. 중세의 유대인은 법의 밖에 서있지만 법의 처벌을 받는 존재이다. 이 불결한 유대인들은 예수의 원흉이자 고리대금업자로서 희생 제물이 될 수 없는 동시에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존재였다. 1190년 요크 대학살이 보여주듯, 왕의 필요나 귀족의 채무 탕감을 위해 그들은 끝임 없는 착취와 때론 죽임을 당했다. 법의 안도 밖도 아닌 규정될 수 없는 제 3의 영역에 존재하는 영국의 유대인들은 벌거벗은 생명 그 자체였다.

군주의 정치 신학적 예외상태는 『예루살렘 공성전』의 인기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예루살렘 공성전』의 독자들은 그것을 읽는 동안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의 예외상태를 대리 경험한다. 『예루살렘 공성전』은 100년 전 추방된 유대 호모 사케르를 불러내어 독자로 하여금 잔인한 폭력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 서사에서 독자는 그들의 특권인 예외상황의 시선으로 유대인을 바라본다. 이 시선이 제공하는 쾌감은 일시적이다. 14세기말 상황에서 이 시의 독자들은 자신이 예외상황의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호모 사케르에 가까웠다. 흑사병, 농민반란, 지난한 100년 전쟁, 십자군 전쟁의 환멸과 같은 역사의 변혁들은 그 시대를 사는 누구든 그 기간을 종말의 시대로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그들은 사실 200년 전 클리프트 성에 갇혀 ‘종말’을 맞이했던 유대인들과 별반 다

르지 않았다. 그들 역시 그들을 둘러싼 종말론적 격변으로 인해 피포위 공포를 느꼈고 자신을 “별거벗은 생”을 살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들의 공포는 부재의 유대인을 불러와 자신의 공포를 투영하고 성안에 가둠으로 어느 정도 해소된다. 사실 이들은 성 안과 밖을 끊임없이 전전하면서 그들의 삶을 영위한다. 그들은 종말론적 일상의 상황에서는 성안의 피포위된 호모 사케르로 극심한 공포에 시달린다. 『예루살렘 공성전』과 같은 서사는 피포위 공포에 찌든 이들에게 잠시나마 성 밖으로 탈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성 밖에 선 이들은 그들이 도망쳐 나온 성을 가상의 호모 사케르로 채우고 그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즐긴다. 성의 피포위는 호모 사케르 개념에 새로운 위상학을 선사한다. 호모 사케르는 법의 안과 밖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영역을 설정하지만 공성전 상황의 피포위는 이 새로운 영역을 상정하지 않는다. 피포위 상황에서 안과 밖의 경계는 굳건하고 다른 공간을 허용하지 않지만 예외상태의 균주를 제외한 (그도 이 상황에서 안전하게 자유로울 순 없다) 모든 인간은 두 영역을 동시에 점유한다. 그들에게 성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그들을 대신할 가상의 타자를 성안에 가두고 폭력을 가할 때이다.

4. 『워킹 데드』: 좀비로 둘러싸인 미국이라는 거대한 감옥⁷

좀비 영화가 태동하던 60, 70년대에 좀비의 개체 수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초기 좀비들은 개별적이거나 소수의 무리로 느릿느릿 돌아다니며 마을 사람들을 놀래는 데에 만족했지만,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이제 수만의 군단(legion)이 되어 사람들을 도시에 가두고 먹어치운다. 좀비 개체 수의 변화는 영화 기술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 개별 연기자 혹은 만화가가 하나하나 좀비를 연기하거나 그럴 수 있는 개체 수는 서사적 상상력을 제한했지만 영화와 게임 산업에서 발전한 컴퓨터 그래픽 기술은 수십만 혹은 수백만의 좀비를 상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예를 들면 2013년에 개봉된 영화 <세계 대전 Z>(World War

⁷ 4장은 본 논문의 사전 연구인 『동서양의 피포위 공포 연구: 『워킹 데드』와 『진격의 거인』』의 2장 부분을 논문이 출판된 『동서비교문학저널』의 허락을 득하여 확장 발전시킨 내용이다.

Z)는 좀비의 수가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 가장 압권인 장면은 수십만의 좀비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높은 담을 넘고 성을 함락하는 부분이다. 영화 서사의 중심인 이 부분은 앞서 논의한 『예루살렘 공성전』에 대한 의미심장한 오마주이자 패러디라고 말할 수 있다. 수십만이 넘는 인근 팔레스타인 좀비들이 예루살렘 성 유대인들을 포위하고 수적인 우세를 통해 마침내 성을 몰락시키는 이 에피소드는 예루살렘 피포위 서사를 다시 한 번 재현하면서 서구인들의 피포위 공포 전통을 재확인 시킨다. 원작인 소설 『세계 대전 Z』(World War Z)의 가상의 인터뷰 대상인 이스라엘 첩보요원 위르겐 바름부룬(Jurgen WarmBrunn)이 주장하듯 이 피포위 공포는 이스라엘의 기나긴 핍박의 역사를 통해 강화/유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핵심은 결국 태어나는 건 다 운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멸종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일군의 사람들 [유대인] 속에서 우연히 태어났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체성, 사고방식의 일부이고 끔찍한 시행착오를 통해 항상 경계하도록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I guess what it really comes down to is the randomness of birth. I happened to be born into a group of people [Jews] who live in constant fear of extinction. It's part of our identity, part of our mind-set, and it has taught us through horrific trial and error to always be on our guard. (40)

바름부룬의 유대성에 대한 자기고백은 피포위 공포가 『예루살렘 공성전』이 드러내는 “끔찍한 시행착오” 중 하나이며 생명의 “멸종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이 좀비 서사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루살렘 공성전』과 좀비 서사가 유사한 피포위 공포의 구조를 가진 반면, 시대의 변화에 따른 공포의 주체와 대상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생물학적이자 신학적 생명의 멸종에 대한 두려움이 『예루살렘 공성전』의 피포위 공포의 모습이었다면, 영화, 소설, 그래픽 노블의 형식의 좀비 서사는 사회적이자 자본주의적 생명의 멸종의 공포를 다룬다고 볼 수 있다.

『워킹 데드』에도 전통적인 공성전과 유사한 장면이 있다. 총 23권인 출판본에

서 3권에서 8권까지의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교도소 에피소드”는 『워킹 데드』 서사의 허리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작품의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상징이며 핵심 메타포이다. 농장에서 쫓겨난 릭과 그의 무리는 좀비로부터 그들을 지켜줄 안식처로 보이는 버려진 교도소를 발견한다. 죄수를 강제로 감금하고 감시하던 이 교도소가 이제 그들을 좀비 군단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리라 기대하지만 그 안에는 좀비만큼 포악한 아직 살아남은 죄수들이 있었다. 그들과의 싸움은 밖의 좀비뿐만 아니라 같은 인간이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릭에게 일깨워준다. 안식처인 교도소의 종말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다. 교도소를 노리는 또 다른 인간 무리는 교도소의 위치를 알아내고 군부대에서 탈취한 무기로 릭의 무리와 대규모 전투를 시작한다. 이 전투로 좀비를 막아냈던 교도소의 경계철조망은 무너지고 교도소는 다시 좀비의 세상이 된다.

『워킹데드』에서 이 교도소는 미국인의 다양한 피포위 공포를 거대한 메타포로 은유한다. 교도소는 미국인에게 단순한 수감기관을 넘어 미국의 복잡한 사회 문제를 상징한다. 인구비례로 가장 많은 재소자가 있는 미국에서 교도소는 부정적인 의미로 미국 사회의 축소판이다. 미국은 2013년 기준 10만 명 당 716명의 재소자를 가두고 있는데, 이 비율을 전 세계 인구로 옮기면 전 세계 인구의 5%를 가진 미국이 전 세계 재소자의 22%를 보유한 셈이다(Walmsley). 브라이언 스티븐슨(Brian Stevenson)에 따르면 한때 미국을 정의하는 단어가 노예제도였다면, 이제 “대량투옥”(mass incarceration)이 미국이란 국가를 규정하는 단어이다(Hedges). 더 큰 문제는 40%가 넘는 재소자들이 흑인 젊은이라는 것이다. 20세에서 24세의 젊은 흑인 아홉 명중 하나는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고,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모든 흑인의 삼분의 일이 일생에 한 번은 교도소 경험을 한다는 암울한 예상이 나올 정도다(Alexander 9). 이 상황은 미셸 알리그젠더(Michelle Alexander)의 주장처럼 차별을 교묘히 숨긴 제 2의 인종차별이라 할 수 있다(4).⁸

잘 알려져 있듯이 좀비 서사의 탄생은 흑인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있다. 아

⁸ 197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범죄율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시행한 삼진 아웃제도는 예상했던 범죄율을 줄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백인 청소년들의 마약 사용이 더 심각한 문제였지만 마약으로 검거되어 형을 산 대부분의 청소년은 흑인이었다. 알리그젠더는 그녀의 저서에서 대량투옥 정책이 흑인종 청소를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단순한 음모론에 그치지 않는다고 조심스레 주장한다.

이티의 부두교에서 주술사가 최면을 걸어 흑인 노예들에게 일을 시킨다는 좀비 이야기는 미국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기에 충분했다. 백인들이 느꼈던 공포는 식민지의 기괴한 행동이나 좀비가 된 흑인 좀비의 모습이 아니라 백인 자신들이 좀비가 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었다. 이런 초기 좀비 영화의 진정한 공포는 서구 백인들이 식민지의 흑인 노예에 의해 “지배, 정복, 그리고 사실상 ‘식민지화’”(dominated, subjugated, and effectively “colonized”)될 것이라는 공포다 (Bishop, “The Sub-Subaltern Monster” 141-2). AMC에서 제작한 티비 시리즈 <워킹 데드>가 북부보다 남부에서 인기가 훨씬 많았다는 사실은 흑인 노예의 문제를 여전히 의식하고 있는 남부 미국인들의 무의식적 긴장감이 공포의 쾌락으로 전이되었다는 흥미로운 가설을 가능케 한다.⁹

하지만 이 에피소드에서 흑인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나 인종차별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릭의 무리에는 미쉰(Michonne) 같은 흑인과 히스패닉 인물들이 많고 그들은 오히려 백인들보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오히려 아무 이유 없이 아이들을 도륙한 백인 토마스의 광기가 부정적으로 그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킹 데드』의 서사는 릭의 관점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경찰인 백인 주인공의 행동과 말은 기존 질서의 붕괴를 두려워하는 의식 저 밑에 흐르는 공포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 공포는 백인들이 메이플라워호에서 만들어낸 개인과 국가의 균형 잡힌 질서라는 이상이 거리를 어슬렁거리며 그들을 포위한 다른 “열등한” 인종에 의해 무너져가고 있다는 편견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교도소를 지켜내려는 릭은 폭력을 막기 위해 더 폭력적이 되어간다. 미국이란 사회는 개인에게 스스로를 지켜야한다는 의무이자 권리를 주는 동시에 개인 간의 폭력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법의 집행자들에게 더 큰 폭력을 허락했다. 마이클 무어(Michael Moore)의 <볼링 포 콜롬바인>(Bowling for Columbine)이 고발하듯 학교 내의 총기 사고로 매년 수백 명의 목숨이 사라져도 미국 총기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의 영향력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경찰의 폭력적 진압

⁹ Josh Katz는 드라마 시청률 지도를 통해 지역 사이의 문화간극을 설명하고 있는데, <워킹 데드>의 경우 남부, 특히 가난한 켈터키주나 남부 텍사스주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그의 기사 “‘Duck Dynasty’ vs. ‘Modern Family’: 50 Maps of the U. S. Cultural Divide”를 참고하라.

수위는 높아만 간다. 무기를 가지고 스스로를 지키라는 수정 헌법 2조는 폭력을 막기 위해 더 큰 폭력이 필요한 악순환으로 미국을 몰아갔다. 이 악순환의 결과로 미국은 점점 더 어빙 고프만(Erving Goffman)이 정의한 “감호기관” 혹은 “총체적 기관”(total institution)을 닮아가고 있다. 고프만은 정신병원이나 교도소 안에서 직접 수감자들을 관찰하여 이러한 총체적으로 감시하는 기관들이 수감자들을 외부와 단절시키는 방식을 연구하였다. 그에 따르면 소수의 감시자가 다수의 수감자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과정에서 수감자의 자이는 축소되고 마침내 죽게 된다(14). 이 죽음은 자율성의 상실을 의미한다(43). 고프만의 연구를 통해 릭이라는 주인공을 살펴보면 감호기관의 역할을 했던 국가의 몰락을 대신해 자신이 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의 환상을 읽어낼 수 있다. 교도소 에피소드는 이 환상이 무너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외부의 공포인 좀비와 릭의 무리를 위협했던 교도소 수감자 텍스터라는 내부의 공포와 싸우면서 릭은 폭력을 진압하기 위해 더 비인간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또 하나의 괴물이 된 자신을 발견한다.

총체적 수감기관인 국가와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개인의 문제는 훨씬 위협적인 외부의 공포로 사람들의 시야에서 가려지기 일쑤이다. 릭과 그의 무리 사이의 갈등은 절조망을 무너트리고 교도소 안으로 들어오려는 수많은 좀비에 의해서 중단된다. 실제로 미국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9/11 사태는 미국의 모든 문제를 덮고 사람들의 시선을 지구 반대편 이라크로 돌리게 했다.¹⁰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은 “국토방어”(homeland defense)라는 미명아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을 정당화했다.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에 따르면 세계화와 결합된 테러와의 전쟁은 21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를 말한다. 미국은 국경을 초월한 새로운 경제 영토, 즉 신자본주의적 세계화가 미국의 무한한 경제 발전을 가능케 하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합의를 통한 신자본주의가 미국의 경제를 부양시킬 수 없음을 알았을 때 미국은 군사적 제국주의라는 과거의 망령을 불러낸다. 9/11이 불러낸 이 망령은 다른 인종을 포위해서 공격하고 또 다른 공성전을 세계 곳곳에서 벌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디어를 통해 배포된 테러와 같은 위협의 이미지들은 대중의 피포위 상상력을 자극했고 일상의 모든 영역을 침범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상에서 혼

¹⁰ 9/11 이후에 좀비관련 영화와 소설, 그리고 게임의 수는 이상할 정도로 높았다(Bishop, *American Zombie Gothic*).

히 만나게 되는 어려움을 아우슈비츠 급의 재난과 동일시하도록 만든다.¹¹

인종과 테러보다 경제 문제는 미국인의 일상으로 훨씬 깊숙하게 파고든다. 『워킹 데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좀비 서사는 안식처와 음식을 찾아 떠나는 위험한 여행이 서사의 뼈대를 이룬다.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자본주의 문화를 누리려는 것은 바로 경제의 문제이다. 미국인들에게 최대의 공포는 바로 미국 경제의 몰락이다.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자 세계의 모든 상품들이 모이고 소비되는 미국에서 사람들의 소비를 지탱할 수 있는 경제력의 또 다른 이름은 신(神)이라 할 수 있다. 냉전 후 군사와 경제 모두의 패권을 쥔 세계의 경찰(츄스키에 따르면 깡패)인 미국은 항상 경제의 몰락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폴 와츠텔(Paul Wachtel)에 따르면 상품의 생산과 소비에 집중한 사회는 비이성적이고 “정신병적인 방어기제”(neurotic defense mechanisms)를 가진 사람과 유사하다(1). 테런스 라퍼티(Terrence Rafferty)는 엄청난 수로 등장하는 좀비에 대한 공포는 제3세계에 대한 미국인들의 공포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중국과 인도와 같은 아시아의 엄청난 인구는 세계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언젠가는 미국인들이 누리던 것도 다 빼앗을 것이라는 공포가 존재한다. 실제로 중국의 엄청난 자원외교는 아프리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Sun).

이러한 공포는 앞서 말했듯이 좀비 공정전에서 극대화된 형태로 재현된다. 공정전이라는 상황은 좀비 서사에 자주 등장하는 가족과 지인의 좀비화와 이로 인한 혼란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이다. 공정전이 제공하는 절대적인 피아구분은 외부에서 다가오는 공포를 극대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흑인을 대표로한 인종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이와 함께 좀비 서사의 인기가 여전히 내면화된 인종 갈등에 기인한다 할 수 있지만) 911 사태 이후로 피아구분의 전선이 미국 영토 밖의 지역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힘들다. 『워킹 데드』의 교도소 에피소드에서도 이는 명확하다. 교도소 안에서의 릭과 그의 무리들, 그리고 그곳을 이미 점유하던 수감자들 사이의 갈등이 잔인한 방식으로 전개되어도 “잔인함”은 희석되지 않고 여전히 감당하기 힘든 잔인함으로 남아있다. 반면에 공권력을 스스로 위임받은 릭과 미손이 좀비들을 장검으로

¹¹ 이런 공포의 일상화는 좀비 서사의 하부 장르인 “좀비 재난 매뉴얼” 서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맥스 브룩스의 『좀비 서바이벌 가이드』(Zombie Survival Guide)와 같은 작품들을 꼽을 수 있다.

아무리 잔인하게 처리할지라도 그녀는 자신이 행하는 폭력의 잔인함에 대한 어떤 의식을 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 다른 좀비 서사와 마찬가지로 『워킹 데드』에서도 좀비를 죽이는 것은 예외적인 몇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 쾌락에 가깝다. 이 쾌락은 인간 생존자가 먼저 공격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공포를 통해 작동한다. 컴퓨터 슈팅 게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사가 좀비 아포칼립스라는 것은 좀비 서사의 무한 허용이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한 쾌락의 서사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폭력의 쾌락과 그 뒤의 피포위 공포는 좀비 서사를 넘어 미국의 현실 대외정책에서도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시리아 폭격은 이를 잘 보여준다. 미국의 폭격은 적과 조우하지 않고 기계를 사용한 대리전이라고 할 수 있다. 드론이라는 대리자를 통해 전쟁을 치루는 미국에게 폭격의 대상은 이미 인간이라기보다 좀비에 가깝다.

5. 결론: 유대인, 좀비, 타자(이웃)의 윤리학

700년이라는 상당한 시차에 불구하고 『예루살렘 공성전』과 『워킹 데드』와 같은 좀비 서사의 피포위 공포의 작동 원리 중 하나는 내가 먹힐 수 있다는 공포이다. 『예루살렘 공성전』의 마리아가 자신의 아이를 구워먹는 장면이 당대의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그 사건을 자체의 피기함을 넘어 유대인을 완벽한 타자로 구성했던 알리바이 때문일 것이다.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살해해 제물로 바친다는 소문은 유대인을 인간이 아닌 대상으로 규정했음을 반증한다. 앞서 논의했듯이 무엇보다도 유대인의 부재는 가소성이 좋은 상징적 타자를 제공했고 유대인이 자신들의 아이들을 납치해 잡아먹을 것(blood libel)이라는 끊임없는 공포를 가공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야만의 유대인과는 다른 영국인이라는 ‘정상적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21세기 좀비 역시 생존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자신들이 언제든지 그들을 먹어치울 수 있다는 공포를 선사한다. 현대사회를 “먹고 먹히는” 경쟁사회로 보는 관점에서 이 세상은 좀비에게 먹히던지 내가 좀비를 살육하던지 두 개의 선택지만 가지고 있는 듯 보인다. 비록 좀비 서사에서 인간들이 약자로 등장하지만 이 약자 코스프레를 그들에게 좀비라는 타자에게 무비판적인 폭력을 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먹는다는 행위는 그 행위의 대상인 음식을 내 신체의 일부로 만드는 과정이다. 이 생리학적 과정은 고대로부터 비유를 통해 타자를 통한 정체성 형성을 설명하는데 자주 사용되었다. 매기 킬거(Maggie Kilgour)에 따르면 인간의 정체성은 섭취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나와 타자를 구별할 수 없는 유아는 자신에게 젖을 주는 어머니와 자신을 구별하지 못한다. 어머니의 젖은 유아 자신의 일부이고 젖을 먹는 행위는 자신의 일부를 다시 섭취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에, 이 아기는 자신의 몸의 일부를 먹는 식인 행위, 즉 카니발리즘이라는 과정을 통해 생존한다. 비록 유아기 발달 단계를 따라 어머니와 분리되어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겠지만, 성인이 된 인간에게 생리학적이고 심리학적 카니발리즘 인식체계, 푸코의 용어를 빌리면 식인적 에피스테메(episteme)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기에 한 인간이 자신의 안정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타자의 섭취가 필요한지 모른다. 나를 규정하는 타자라는 이항대립은 타자를 피아식별이라는 틀에서 바라보기를 요구하고 그들을 취식하여 스스로를 살찌운다. 이런 이분법적 틀은 내가 타자를 먹고 나의 정체성을 기르거나 내가 먹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공성전과 유사한 인식론, 즉 피포위 심리와 동반되는 공포의 기초가 된다.

문제는 타자로 규정해야 할 이들이 (그렇기에 먹어야 할 대상인) 동시에 나의 이웃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성경은 이 이웃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제시한다. 예수는 이웃에 물리적 거리나 일반적으로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정치/사회적 거리를 무시한 정의를 내린다. 잘 알려진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를 잘 설명한다. 이방인과의 혼인으로 태어난 자들인 사마리아인은 인종적으로 분리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 배반자인 동시에 종교적 배교자이다. 예수는 이를 이웃으로 정의하고 구약의 규율(레위기 19:18)을 따라 이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명령한다(마가복음 12:31).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정의하는 이웃은 나의 정체성 밖에 존재하는 타자이며 그 타자를 자신과 동일하게 사랑하라는 명령은 불가능에 수렴한다. 이 명령은 『예루살렘 공성전』과 『워킹 데드』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반유대주의를 통해 폭력을 정당화하고 유대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불을 지피는 『예루살렘 공성전』에서 “이웃”의 정치신학은 설 자리를 가지지 못한다. 『예루살렘 공성전』에서 유대인이 이웃으로써 받아야 할 사랑을 박탈당했다면 『워킹 데드』의 이웃인 좀비는 목소리조차 가지지 못한다. 인간을 정의하는 모든 것을 빼앗긴 좀비들은 인간을 해치려는 욕망으로만 규정된다.

이 두 서사는 타자에 대한 윤리와 깊은 관련이 있다. 『예루살렘 공성전』에서 타자는 신학적으로 규정되는 것 같지만 이 서사가 탄생하고 인기를 끌던 그 시대를 비춰보면 자본과 왕권 중심의 권력체계가 태동하던 타자의 담론을 담지한다. 자본 시장 형성의 핵심이었고 이 자본과 왕권의 연결고리였던 유대인은 그 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공포의 타자로 기능했다. 마찬가지로 좀비 역시 우리 시대의 공포의 총합이다. 인종적 타자에서 출발한 좀비는 이제 에볼라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공포, 근본주의자들의 테러, 제 3세계의 인구와 경제적 몰락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다양한 타자의 공포를 그 안에 응축했다. 큰 시간차에도 불구하고 두 서사에 나타나는 타자의 윤리는 유사한 면이 있다. 『예루살렘 공성전』과 『워킹 데드』는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의 얼굴과 마주하고 느끼게 되는 무한 책임의 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두 개의 공포 서사는 지적이 설파하는 “피물로써의 이웃”에 더 가깝다. 그에 따르면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우리는 이웃이란 타자의 욕망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욕망도 알 수 없다. 얼굴은 더 이상 재현 불가능한 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현현시키는 인식의 창문과 같은 비유(얼굴 뒤에 진정한 타자의 모습이 있다는 또 다른 형이상학)로 기능하지 않고, 오히려 얼굴이라는 피부 속에 감춰진 근육, 뼈, 피라는 나의 일부이지만 나로 인식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예루살렘 공성전』에서 유대인의 피, 뇌, 창자가 터져 사방으로 튕다 해도, 『워킹 데드』에서 좀비의 살점과 뼈를 아무리 난도질한다 해도 피부 속 해부학적 동일성은 유대인과 기독교인, 좀비와 감염되지 않은 인간 사이에 어떤 본질적인 같음을 담보하지 못한다. 두 서사는 어떤 타자의 윤리학적 접근도 부정하는 타자의 공포를 사용해 독자를 유혹한다.

이런 타자들로 둘러 쌓여있다는 공성전의 설정은 독자들의 심리적 피포위 공포를 극대화한다. 『예루살렘 공성전』에서 『워킹 데드』까지 하나의 단일한 전통이 존재한다고 말할 순 없지만 이 피포위 공포는 서구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그를 둘러싼 다양한 타자를 인식하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기치 못한 당선은 이 인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킨 원동력이 중서부와 북동부의 러스트 벨트(rust belt)의 노쇠한 자동차 도시의 백인들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제3세계의 값싼 노동력과 경쟁력이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는 두려움을 염두한 트럼프의 공약은 멕시코와의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쌓는 것이었다. 거리는 만리장성의 반인 3000 킬로

미터이며 높이는 대략 10미터인 이 장벽은 다시 미국인들이 느끼는 피포위 공포를 상징 차원에서 현실 세계로 외연화한 결과물임에 틀림없다. 보호구역과 화석 연료로의 회귀(파리기후협정 탈퇴)는 멕시코 국경의 장벽과 맞물려 미국을 거대한 성안에 가둘 것이고 그 안의 인간들은 가중된 피포위 공포를 경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대한 기사를 읽으며 『예루살렘 공성전』과 『워킹 테드』의 교도소 장면을 떠올리는 데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다.

유대인과 좀비 같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모든 인간을 같음으로, 즉 보편성을 가진 하나의 집단으로 묶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폭력적이다. 이 시대는 일반적인 것에 따르지 않는 “모든 단독적인 것을 쓸어 없앤다(한병철 22). 레비나스처럼 이웃이란 타자를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대상으로 묶는 것 역시 다른 방식의 폭력이 될 수 있다. 레비나스는 타자의 타자성이 이해 불가능한 심연에 있다고 믿는다. 이 심연은 우리에게 타자에 대한 무한 책임을 호출하지만, 지젝의 지적처럼 나치가 유대인에 대해 가졌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Žižek, *Violence* 56). ‘우리와 다름’에 ‘우리보다 못함’이 더해지는 순간 레비나스의 (타자의 얼굴에 대한) 무한 책임은 나치의 (얼굴 없는) 무한 폭력으로 바뀔 수 있다. 이 심연에 놓인 다름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겪는다.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 공성전』을 읽으며 유대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쾌감을 느끼지 못한다. 서구 정체성에 편입되어 동일성을 획득한 유대인은 더 이상 타자가 아니며 새로운 팔레스타인의 타자들과 끊임없이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¹² 반면에 좀비는 만화, 영화, 컴퓨터 게임과 같은 다양한 매체의 타자로 기능하며 폭력의 쾌감을 제공하는 안전한 대상이다. 이데올로기를 벗어버린 “탈정치”(post-politics) 시대(다가올 민주주의)는 정치적 올바름의 태도를 강요하고 “타자를 두려워하도록”(fear thy neighbor) 가르친다. 어쩌면 서구의 주체가 정치적 올바름의 테두리 안에서 적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피포위 공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파농(Frantz Fanon)의 책 제목을 바꾸어 표현하면 인간 피부 위에 좀비의 마스크를 씌우는 것이다. 옆 사람의 눈을 찌르는 행위보다 드론으로 시리아의 수백명을 죽이는 명

¹² 지젝은 타자-대상(thing)이 “정상적인 인간 동료”(normal human fellow)로 전환되는 과정을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으로 명명한다(“Neighbors and Other Monsters” 144). 그에 따르면 이 과정은 나와 타자의 관계가 아니라 제3자인 상징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령이 덜 잔인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인간이 아님을 나타낸 비인간 표식인 좀비 마스크는 타자와 거리를 두고 나의 (허구적일 수 있는) 윤리적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좀비 서사가 제공하는 이 거리의 쾌락이 인종, 난민, 이슬람, 거대해지는 제 3세계의 타자에 대한 공포를 누그러트릴 수 있을지 아니면 그 공포를 더욱 부추기는지 알 수 없다.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은 데리다(Jacque Derrida)가 말하는 것처럼 “잘 먹는 것”(eating well)일지 모른다(114-5). 먹지 못할 완전히 다른 것으로 규정하지도 않고 완전히 섭취해서 나와 동일한 것으로 만드는 것도 아닌 팽팽한 긴장감 속에 타자를 이해하려는 줄타기가 좀비 타자에 대한 서구인들과 그들의 생각을 흡수해온 우리들의 윤리적 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지젝을 인용하면 “우리는 존재론을 선행한다”(“Neighbors and Other Monsters”145). 이 긴장의 윤리가 언젠가 좀비를 우리의 “존재”로 인식하게 될 순간을 앞당기리라 기대한다.

주제어 | 『예루살렘 공성전』, 『위킹 데드』, 피포위 공포, 이웃, 폭력

인용문헌

- 이희구. 『동서양의 피포위 공포 연구: 『위킹 데드』와 『진격의 거인』』. 『동서비교문화 저널』 33.2 (2015): 211-234. Print.
- 한병철. 『타자의 추방』.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7. Print.
- Agamben, Giorgio.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Trans. Daniel Heller-Roazen. Stanford: Stanford UP, 1995. Print.
- Alexander, Michelle. *The New Jim Crow: Mass Incarceration in the Age of Colorblindness*. New York: The New Press, 2010. Print.
- Bar-Tal, Daniel. “Siege Mentality.” *Beyond Intractability*. Eds. Guy Burgess and Heidi Burgess. Conflict Information Consortium,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Posted: September 2004. Web.
- Bishop, K. William. *American Zombie Gothic: The Rise and Fall (and Rise) of the Walking Dead in Popular Culture*. Jefferson, NC, and London: McFarland & Company, Inc., 2010. Kindle File.

- "The Sub-Subaltern Monster: Imperialist Hegemony and the Cinematic Voodoo Zombie." *The Journal of American Culture* 31.2 (2008): 141-152. Print.
- Brooks, Max. *The Zombie Survival Guide: Complete Protection from the Living Dead*. New York: Three Rivers P., 2003. Print.
- *World War Z: An Oral History of the Zombie War*. New York: Broadway, 2007. Print.
- Chism, Christine. "The Siege of Jerusalem: Liquidating Assets." *Journal of Medieval and Early Modern Studies* 28 (1998): 309-40. Print.
- Cohen, Jeffrey Jerome. "On Saracen Enjoyment: Some Fantasies of Race in Late Medieval France and England." *Journal of Medieval and Early Modern Studies* 31.1 (2001): 113-46. Print.
- Derrida, Jacques and Jean-Luc Nancy. "'Eating Well,' or the Calculation of the Subject: An Interview with Jacques Derrida." *Who Comes after the Subject?* Eds. Eduardo Cadava, Peter Connor, and Jean-Luc Nancy. New York: Routledge, 1991. 96-119. Print.
- Forster, Marc, dir. *World War Z*. Perf. Brad Pitt. Plan B, 2013. Film.
- Friedman, John B. *The Monstrous Races in Medieval Art and Thought*. New York: Syracuse UP, 2000. Print.
- Goffman, Erving. *Asylums: Essays on the Social Situation of Mental Patients and Other Inmates*. New York: Anchor Books, 1961. Print.
- Hamel, Mary. "The Siege of Jerusalem as a Crusading Poem." *Journeys toward God: Pilgrimage and Crusade*. Ed. Barbara N. Sargent-Baur. Kalamazoo: Medieval Institute Publications, 1992. 177-94. Print.
- Hanna, Ralph. "Contextualising The Siege of Jerusalem." *Yearbook of Langland Studies* 6 (1992), 109-21. Print.
- Harvey, David. *New Imperialism*. Oxford: Oxford UP, 2003. Kindle File.
- Hebron, Malcolm. *The Medieval Siege: Theme and Image in Middle English Romance*. Oxford: Clarendon Press, 1997. Print.
- Hedges, Chris. "Why Mass Incarceration Defines Us as a Society." *Smithsonian Magazine* Dec. 2012. Web. 25 May 2015.
- Higgins, Iain. *Writing East: The "Travels" of Sir John Mandeville*. Philadelphia: U of Pennsylvania P, 1997. Print.
- Hulbert, J. R. "The Text of The Siege of Jerusalem." *Studies in Philology* 28 (1930), 602-12. Print.
- Hyams, Paul. "Faith, Fealty and Jewish 'infideles' in Twelfth-Century England."

- Christians and Jews in Angevin England: The York Massacre of 1190, Narratives and Contexts*. Eds. Sarah Rees Jones and Sethina Watson. York: York Medieval P, 2013. 125-47. Print.
- Jones, Sarah Rees. "Neighbours and Victims in Twelfth-Century York: a Royal Citadel, the Citizens and the Jews of York." *Christians and Jews in Angevin England: The York Massacre of 1190, Narratives and Contexts*. Eds. Sarah Rees Jones and Sethina Watson. York: York UP, 2013. 15-42. Print.
- Jones, Sarah Rees and Sethina Watson. *Christians and Jews in Angevin England: The York Massacre of 1190, Narratives and Contexts*. York: York UP, 2013. Print.
- Katz, Josh. "'Duck Dynasty' vs. 'Modern Family': 50 Maps of the U. S. Cultural Divide." *The New York Times*, 27 Dec. 2016. Web. 27 May. 2017.
- Khanmohamadi, Shirin A. *In Light of Another's Word: European Ethnography in the Middle Ages*. Philadelphia: U of Pennsylvania P, 2014. Print.
- Kilgour, Maggie. *From Communion to Cannibalism: An Anatomy of Metaphors of Incorpor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P, 1990. Print.
- Kirkman, Robert. *The Walking Dead*. Orange, CA: Image Comics, 2015. Print.
- Kohanski, Tamarah and C. David Benson, eds. *The Book of John Mandeville*. Kalamazoo: Medieval Institute Publications, 2007. Print.
- Larkin, Peter. *Richard Coer de Lyon*. Kalamazoo: Medieval Institute Publication, 2015. Print.
- Levinas, Emmanuel. *Alterity and Transcendence*. Trans. Michael B. Smith. New York: Columbia UP, 1999. Print.
- Lupack, Alan, ed. *Three Middle English Charlemagne Romances*. Kalamazoo: Medieval Institute Publications, 1990. Print.
- Moore, Michael, dir. *Bowling for Columbine*. Dog Eats Dog Films, 2002. Film.
- Mundill, Robin R. *The King's Jews: Money, Massacre and Exodus in Medieval England*. London: Continuum, 2010. Print.
- Nicholson, Roger. "Haunted Itineraries: Reading the Siege of Jerusalem." *Exemplaria* 14.2 (2014): 447-484. Print.
- Rafferty, Terrence. "The State of Zombie Literature: An Autopsy." *The New York Times*, 3 Aug. 2011. Web. 25 May 2015.
- Schmitt, Carl. *Political Theology*. Trans. George Schwab. Chicago: U of Chicago P, 2005. Print.
- Sun, Yun. "China in Africa: Implications for U. S. Competition and Diplomacy."

- Brookings*, 3 Apr. 2013. Web. 18 August. 2017.
- van Court, Elisa Narin. "'The Siege of Jerusalem' and Augustinian Historians: Writing about Jews in Fourteenth-Century England." *The Chaucer Review* 29.3 (1995): 227-248. Print.
- Vincent, Nicholas. "William of Newburgh, Josephus and the New Titus." *Christians and Jews in Angevin England: The York Massacre of 1190, Narratives and Contexts*. Eds. Sarah Rees Jones and Sethina Watson. York: York Medieval P, 2013. 57-90. Print.
- Walmsley, Roy. "World Prison Population List." International Centre for Prison Studies. 10th edition 2013. Web.
- Watchtel, Paul L. *The Poverty of Affluence: A Psychological Portrait of the American Way of Life*. Philadelphia, PA: New Society Publishers, 1989. Print.
- Watson, Sethina. "Introduction: The Moment and Memory of the York Massacre of 1190." *Christians and Jews in Angevin England: The York Massacre of 1190, Narratives and Contexts*. Eds. Sarah Rees Jones and Sethina Watson. York: York Medieval P, 2013. 1-14. Print.
- Wright, Stephen K. *The Vengeance of Our Lord: Medieval Dramatizations of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Toronto: Pontifical Institute of Medieval Studies, 1989. Print.
- Žižek, Slavoj. "Neighbors and Other Monsters: A Plea for Ethical Violence." *The Neighbor: Three Inquiries in Political Theology*. Chicago: The U of Chicago P, 2005. 134-190. Print.
- . *Violence: Six Sideways Reflections*. New York: Picador, 2008. Print.

K C I

ABSTRACT

***Siege of Jerusalem and Walking Dead:*
A Study on Western Siege Mentality**

Heegoo Lee

We find the same mentality in these two very different narratives with an enormous time gap: *Siege of Jerusalem*, an alliterative poem of the 14th century and the *Walking Dead*, a zombie apocalypse graphic novel of the 21st century. Both narratives are centered around siege warfare where Roman soldiers and zombies lay siege respectively to Jews behind walls and to survivors inside a prison, and develop the extreme fear of being surrounded and killed by enemies. This siege mentality explains the ways in which a nation (an individual) reacts to hostile situations of real/imaginary isolations. *Siege of Jerusalem* retells a traditional narrative of *vindicta salvatoris* whose anti-semitism caused its unusual popularity among 14th century English people who had anxiety and fear of being surrounded by Jews with their blood libel and monetary might. Sadistic enjoyment of violence on Jewish others was justified by political theology of exception status (Christians) and “bare life”(Jews). *Walking Dead* reflects fear of others in the US in the form of a zombie narrative. The prison episode depicts a situation in which survivors are stranded in a prison surrounded by zombies. Prison in the narrative is a felicitous metaphor of America surrounded by terrorist attacks as well as prisons themselves full of young black Americans. Unlike the Roman emperors and the soldiers of *Siege of Jerusalem*, the American survivors in the prison of the graphic novel are justified to use merciless violence on zombie others (and readers are allowed to enjoy the pleasure of it) only because of the pretense of being victims in the zombie apocalypse. This self-victimization in the narrative mirrors the ethics of the formal democracy and political correctness against the others. It is with critical comparison of the two narratives that this paper aims to ask ethical questions of how we can love our neighborly others within a western/westernized construct of siege mentality.

Key Words | Siege of Jerusalem, Walking Dead, siege mentality, neighbor, violence

K C I

원고 접수 2017년 7월 21일 | 심사 완료 2017년 8월 12일 | 게재 확정 2017년 8월 22일